

한센병과 식민주의

박형철, 조명래, 백미영
국립소록도병원

Leprosy and Colonialism

Hyung-Cheol Park, Myung-Rae Cho, Mi-Young Baek

Sorokdo National Hospital

Michelle T. Moran. *Colonizing Leprosy, Imperialism and the Politics of Public Health in the United States*. The University of North Carolina Press. 2007

소록도병원의 전신인 소록도자혜의원은 설립초기 ‘나환자에 대한 시혜’를 주목적으로 내세웠지만 그 이면에는 나요양소를 먼저 운영하던 외국 선교사의 나환자와 조선사회에 대한 헤게모니 다툼과 식민지배의 정당성 확보가 숨어있었다. 소록도갱생원으로 명칭이 변경되는 1934년은 총독부 직영요양소로 바뀌는 거대한 전환점이다. 조선체류 외국인의 시선을 돌리기 위한 목적을 넘어 국제수준의 확장된 식민지배의 정당성 확보 및 대외선전의 의미가 들어 있기 때문이다. 대규모 나요양시설을 통해 조선총독부 위상을 높이고 사회위생문제에 있어 환자관리는 물론 나연구 시설을 통해 제국주의 의학 위상 제고를 포함한 다양한 측면을 염두에 두었다고 볼 수 있다.

이렇듯 제국주의는 질병마저도 지배의 수단으로 전환하여 적용시켰다. 미국 경우도 이와 다르지 않다.

Montgomery College의 부교수이자 역사학자인 Michelle T. Moran의 저서 “Colonizing

Leprosy”는 미국에서 제국주의와 질병(Leprosy)의 역학관계를 잘 보여준다.

한센인을 수용하는 대표적 시설 두 곳이 미국에 있다. Hawaii Moloka’i Kalaupapa Settlement와 Louisiana Carville의 국립나요양소이다. 한센병은 그 자체로 낙인이 된다. 19세기 후반과 20세기 초반, 국외로 눈을 돌린 제국주의 눈에 비친 한센병은 지배와 관리의 대상일 뿐이다. 공공의 이름으로 정치, 보건 정책을 펼치지만 이 역시 권력의 소용돌이 속에서 각자의 입맛에 맞게 재단되어 병을 위한 실질 효과를 거두지 못한다.

“Colonizing Leprosy”는 모두 6개의 장으로 구성된다. 1장에서는 19세기 후반부터 20세기 초반 한센병을 대하는 미국인들의 시각을 보여준다. Hawaii 토착민을 나균 보균자로서 원시적 본성을 부각시켜 국가차원의 격리정책이 정당성을 얻게 되는 과정을 설명한다. 2장은 Hawaii를 장악하는 과정에서 선교활동과 함께 보건정책이 사용되었고, 그럼에도 Hawaii식 저항과 지역 사회 건설이 계속되었음을 서술한다. 미국 본토에서는 1894년부터 Carville에 수용소 개념의 ‘Leper Home’을 건축하게 되는데 이 역시 본질인 의료기술의 적용보다는 본토의 국민들로부터 한센병을 제거하는 것이 목적이었다는 이야기를

3장에서 하고 있다.

이 책 후반부 4, 5, 6장에서는 Kalaupapa와 Carville에 만들어진 두 기관이 설립, 발전, 유지하는 과정을 조사하고 환자들이 어떻게 그들을 둘러싼 벽을 무너뜨리고 한센병에 대한 대중의 시각을 바꾸기 위해 노력했는지 보여준다. 그들은 전쟁이 끝나고 강요된 고립을 뒤집는 데에는 성공했지만 안타깝게도 사회적 편견을 근절하지는 못했음을 알려준다.

1914년 6월, 美西전쟁(Spanish-American War)의 참전용사인 John Ralston Early의 호텔 투숙 사실이 언론에 대서특필된다. 그는 한센병 환자로 Puget Sound 검역소를 통과하여 북아메리카를 가로지른 뒤 콜롬비아의 고급 호텔 Willard에 가명으로 투숙한다. 그곳은 정관계 주요인사가 함께 투숙한 곳이다. 호텔 투숙객들과 섞여 며칠을 보낸 후 보건부 검사관에게 자신의 상태와 위치를 보고한다. 기자회견을 열어 자신의 여행목적도 설명한다. 이 여행을 통해 강제 격리(enforced isolation)의 부당함을 알리고 한센병 환자에 대한 더 나은 처우를 요구한다. 그는 “재판이 열리더라도 미국 시민으로서 헌법상 권리를 위해 싸우겠다.”고 말한다. 결국 체포되어 격리되지만 오래된 뜨거운 논쟁이 재점화되는 계기가 된다.

전반부에 나오는 이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전쟁 영웅으로 존경받는 참전용사조차도 한센병에 걸렸다는 이유로 각종 차별과 격리를 당하는 상황에서 일반인 한센병 환자들의 처우가 어떠했는지, 당시 미국의 분위기를 유추해 볼 수 있다.

이런 무겁고 딱딱한 글을 풀어내기 위해 작자는 서문에서 영화 두 편을 소개한다. 하나는 Paramount의 뉴스영화 “In Sickness and In Health : Husband Seeks to Join Wife in Leper Colony”다. 이야기 주인공 부부는 2차 세계대전

과 관련이 있다. 남편은 필리핀 참전 군인이었고 아내는 Philippines Santa Thomas 감옥에서 일본군에 의해 투옥되었다가 한센병에 걸린다. 영화는 병에 걸려 Carville에 수용된 아내와 동행하려는 남편의 순애보를 그리고 있다. 한센병으로 수용된 아내는 공중보건 상 위해요소가 없다는 의사의 판단 없이는 수용소를 떠나지 못한다. 병자가 아닌 남편은 아내와 함께 하기 위해 시설에 들어가려고 하나 가지 못한다.

이런 순애보는 우리 역사에서도 찾을 수 있다. 조선 성종대에도 나질(癩疾)에 걸린 남편을 지극히 간호하는 아내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다.

“... 면천군(沔川郡)의 선군(船軍) 박문(朴文)의 딸 지지(芷芝)는 일찍이 어미를 잃고 고모 집에서 자랐으며, 나이 17세에 같은 고을 사람 안지의(安止義)의 첩(妾)이 되었는데, 안지의가 나질(癩疾)을 얻어 수년 동안 두눈이 멀고 머리털이 빠지고 피부는 벗겨진 것과 같고 지체(支體)에는 피가 흘러 악한 냄새가 풍겨 사람이 가까이 할 수 없는데도 지지는 섬기기를 꺼려하지 아니하였으며, 안지의(安止義)는 눈에 예막(翳膜)이 있었는데, 혀로 핥기를 무릇 19년을 하면서 조금도 게을리 하지 않았으며, 안지의가 죽자 집 동산에 빈소를 만들어 아침·저녁으로 스스로 제사를 지내고 3년 상을 마치었다.”¹

두 번째 영화는 반공영화 “Big Jim McLane”이다. John Wayne 주연으로 하원 비미(非美)활동 조사위원회(House Un-American Activities Committee) 요원으로 등장한다. 그는 공산당원을 추적하여 Hawaii Moloka'i Kalaupapa까지 가게 된다. 비행기가 반도인 나요양소에 가까워지자 McLane의 걱정이 커져가며 다음과 같이 인정한다. “Frankly leprosy scares me-scares

most people I guess.”

두 편의 영화에서 한센병은 외래 감염병이라는 고정관념을 심어 준다. 필리핀 감방의 불결함에 서, 다른 하나는 하와이의 토착민들에게서 등이다. 다시 말해 일반대중으로부터 분리시켜야 할 대상으로

낙인처럼 찍힌 “Leper”는 소외와 추방 이미지와 연결된다.

열녀 박지지의 예에서 보듯이 우리나라의 전통 한센병 정책은 인도주의, 박애정신이 녹아 있다. 세종대 제주목사 기건이 운영했던 구질막²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이처럼 우리 역사에는 개인의 노력은 물론 국가차원의 한센병 구제노력도 기록되어 있다.

외세 침략과 일제강점기를 거치면서 제국주의 식민정책의 일환으로 소록도 강제격리시설이 운영되었다. 250년이 채 안 되는 미국의 역사와 우리 역사의 흐름을 비교할 수는 없으나 근대만을 놓고 보면 “Colonizing Leprosy”의 논점을 우리 한센병사에 적용하는 데에 큰 무리가 없어 보인다. 그런 의미에서 “Colonizing Leprosy”는 제국주의 일본의 식민지 정책목표나 방법 및 수단을 숙고해 보는데 많은 시사점을 주는 책이라 할 수 있다.

참고문헌

1. 성종실록 권15, 성종3년(1472년) 2월 18일 을유 4 번째 기사.
2. 문종실록 권7, 문종1년(1451년) 4월 2일 경오 1번째 기사.